

# 도올 김용옥, 사물놀이 김덕수 만나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양상블 시나위 협연 무대도  
8일 오후 6시 '인문학 향연'

도올 김용옥의 해안, 김덕수의 가락, 양상블시나위의 현대적 국악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불리는 도올 김용옥 선생과 타악 김덕수, 양상블 시나위를 초청, 우리소리와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오는 8일 오후 6시 전통문화관 너털마당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도올 인문학의 향연'은 인문학과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을 함께 감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특별한 이력과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스로 도올의 강의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충남 천안 출신의 도올은 고려대에서 생물학,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국립타이완대학 철학연구소에서 석사학위와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활동하던 중, 1986년 '한국의 오늘을 사는 지식인의 양심선언'을 하며 교수직을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도올 김용옥'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특히 고려대 사직 후에는 원광대에서 한의학학을 공부하



도올 김용옥



김덕수



양상블 시나위

기도 했다. 철학은 물론 영화, 연극, 국악, 미술 등 다양한 영역을 중형무진 오가며 인문학 사상을 설파해왔다.

이날 강연에서 김용옥 선생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악(禮樂)의 의미를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사이 사이 김덕수의 타악 사물 가락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퓨전국악양상블 시나위의 음악이 연주된다.

이번 인문학 공연에 참여하는 김덕수는 '사물놀이'라는 영역을 구축했으며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지냈다. 사물놀이를 대중화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른 장르와 결합하는 공연을 시도했다. 또한 양상블시나위는 아쟁 연주자 신현식, 바이올린 허희정, 피아노-양금 연주에 정송희, 가야금연주와 소리에 김양화, 타악 정준호 씨로 구성된 현대적인 전통음악 연주 그룹이다.

이날 연주곡은 '손님굿-월식'으로 시작해 '달빛 유희' '야행', '시간의 경계', '마왕을 위한 시나위-Nacht und Wind' 등 양상블 시나위의 창작곡들로 꾸며진다. 또한 연주곡 '부용산'은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이번에는 가사를 차용해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부다'를 엮어 만들었다.

'마왕을 위한 시나위'는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에 나오는 괴테의 시와 판소리에서 밤과 바람을 묘사하는 대목, 진도 씻김굿의 '손님굿' 사실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아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무가로 각색해 새로운 느낌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이며 선착순 300명에 한정해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 062-232-159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독립영화관 '실험영화' 강좌

8·27일, 10월 13일·27일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험영화'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광주독립영화관 Gift는 8일·27일과 10월13일·27일(오후 1시-6시 20분) '실험영화 입문' 강좌를 진행한다. EBS '시네마천국' 진행을 맡고 오프엔 프리 국제실험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지낸 정재형(사진) 동국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정 교수는 영화사 초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험영화운동을 펼친 감독의 작품세계와 대표작을 소개한다. 첫날 1920년대 전통을 부정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관한 강좌를



시작으로 '미니멀리즘과 그래픽영화', '추상표현주의'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한다. 마야 데렌의 '오후의 옴니', 스탠 브래키지의 '독스타맨',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공동 연출한 초현실주의 작품 '안달루시아의 개' 등을 감상한다. 강좌가 끝난 뒤에는 정 교수와 담화도 이뤄진다. 참가비는 무료로 다음 달 6일까지 이메일(gcjinema@hanmail.net)로 신청을 받는다. 문의 062-222-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한문고전 강좌

10일~12월 중순 매주 화요일

한문고전은 혼자 읽기가 어려운 분야다. 지역에서 한문고전 전문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호남지방 관련 한문 문헌을 20년 동안 수집, 정리, 연구해온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소장 김대현·사진)가 한문고전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오는 10일부터 12월 중순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강좌는 모두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1강 '한시 독해'는 연구소 소장인 김대현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사군자 매만국죽을 소재로 한 한시 100여 수를 상세하게 독해하며 2강 '고문서 독해'는 원로 한학자인 박경래 녹양고문 연구원 원장이 호남 각 지방의 고문서



를 종류별로 독해할 계획이다. 3강과 4강은 '한국미술사의 이해', '초서 해독 방법'이 주제다. 이선옥 한국미술사가와 김경옥 원로 한학자가 각각 '한국 그림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 '옛 선인들이 남긴 간찰을 통해 초서의 기초'를 강의한다.

5강은 오만종 전남대 중어중문과 교수가 시경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전을 이해하는 '동아시아 고전 읽기'를 맡는다.

한 강좌당 15명 내외(선착순)이며, 수강료는 24만원이다. 문의 062-513-8033, 010-4006-965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엄마야 누나야' 안성현 국제 현대음악제 열린다

3일~10월 18일 나주 곳곳서  
조지아 공화국 '루스타비' 공연

'엄마야 누나야'를 만든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 선생을 기리는 제8회 나주 안성현 국제 현대음악제가 3일부터 10월18일까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시간(時間)TIM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의 첫 공연은 구 소련연방이었던 조지아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 양상블 루스타비 창단 50주년 기념 무대다. 3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화예술회관.

조지아 민속공연단 '루스타비'는 성악가들과 댄서들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 공연 팀으로 전 세계에 걸쳐 4000회차 이상 공연을 진행했고, 600곡 이상의 민속음악을 발매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민속음악 합창과 전통춤 선보이며 안성현의 '부용산'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오타르 베르제시니빌리 주한 조지아 대사가 함께한다.

8일(오후 7시30분 안성현 음악홀)에는 독일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 정다희(현대음악양상블 S201 단원)를 초청, 드뷔시 서거 100주년 기념 '현대 피아노음악의 밤' 공연을 연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과 이탈리아 현대 음악의 대부라 불리는 루이지 노노의 피아노와 전자음악을 위한 작품,



안성현국제현대음악제에서 3일 공연하는 조지아 민속공연단 '루스타비'

그리고 인도 출신 여성 작곡가 엘나즈 세에디의 작품이 세계 초연된다. 또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작곡가 이흥석과 정종열의 작품이 연주된다.

13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일본군 중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헌정음악회'가 열린다. 전속 시인이 일본군 중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흉터로 얼룩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자 창작된 시에 작곡가 이영조가 곡을 붙인 칸타타

'꽃잎의 흉터'를 초연한다.

또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소재로 작곡한 김선철의 피아노 협주곡이 피아니스트 김정아의 협연으로 연주되며, 바리톤 김지욱의 독창으로 안성현의 '부용산'과 '엄마야 누나야', 소프라노 김진희의 독창으로 정울성의 '연안송'이 연주된다. 나주시립합창단(지휘 김정연), 무지크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지휘 김영연)가 함께한다.

그밖에 오는 10월18일 오후 8시 나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음악과 미디어아트와 클라보레이션 '나주의 빛, 천년의 울림' 공연이 열린다. 전 비엔날레 이사장이었던 김포천(대변), 작곡가 김선철(작곡), 미디어아티스트 이남이 공동 작업한 미디어파사드 공연으로 나주의 과거 천년과 미래 천년을 표현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6422-199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세계미술제 17일까지 응모하세요

대상 1000만원, 전시 개최

(주)광주신세계는 호남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올해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응모 자격은 현재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광주·전남·북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별도의 연령이나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신진작가상'은 만32세 이하로 미술대학 졸업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웹 상으로 접수된 자료를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의 3배수(9명)를 선정하고 '광주신세계미술제 선정작가전'(12월 예정)을 통해 전시한 후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서류심사, 작품심사, 개별 세미나를 통한 작가 자신의 표현 등을 통해 대상 1명, 우수상 1명, 신진작가상 1명 등 최종 수상자 3명을 선정한다.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신진작가상 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 전원의 개인 초대전이 진행된다.

역대 대상 수상자는 손봉체, 이이남, 이정록, 신호운, 하루, 오용석, 이인성, 이연숙, 박세희 등이다. 응모기간은 3일부터 17일까지다.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